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2013.04.11 | 김병권_ 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미국의 주력 정보통신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이스라엘 벤처들을 인수합병하고 투자하는 현상은 “이스라엘의 정보통신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대인의 미국 정치에 대한 막대한 로비 등이 있다는 것이다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

중동의 병영국가이며 유대교의 나라 정도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덮여있는 영토에서 인공수로를 연결하여 농장을 운영하는데 성공한 <집단농장 키부츠>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는 60년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100여기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군수산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가 전부 아닐까?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나 종교가 아니라 경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지난 2011~2012년 사이에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이어진 정부의 재벌개혁 조치가 잠깐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모델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진단들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IT벤처 산업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경제의 전체 면모와 구조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IT산업 중심으로 ‘창업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도 벤처 창업이 활발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진단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 경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전체에서 어떻게 IT벤처들이 형성되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분석한 글은 찾기 어렵다. 이토록 낯설기만 한 이스라엘 경제를 그나마 개략적으로 설명해주는 글이 2010년 출간되어 비교적 알려진 번역서인 『창업국가(startup nation)』, 그리고 KOTRA무역관으로 최근까지 이스라엘에서 근무했던 이영선이 2012년 말에 출간한 『경제기적의 비밀』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 중 이영선의 책이 좀 더 전체적인 개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중요 모토로 내걸고 있는 만큼, 그 모델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경제는 당분간 우리의 관심영역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스라엘 경제의 이해를 돕고자 OECD가 공개하고 있는 몇 가지 통계지표와 이영선의 『경제기적의 비밀』을 주로 참조하여 이스라엘 경제의 큰 그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창업국가(startup nation) 이스라엘 경제 살펴보기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1/4이고, 인구는 2010년 현재 760만 명으로 우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인구를 단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인구 750만 중에서 유대인은 600만 명이고 팔레스타인 아랍인 160만 명이 이스라엘 영토에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1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주해온 것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600만 유대인도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등 곳곳에서 이주해왔다는 점이다. 760만 명의 적은 인구지만 마치 미국처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 고려해서도 안 된다. 미국에 600만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 중 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 포함 해외 유대인을 감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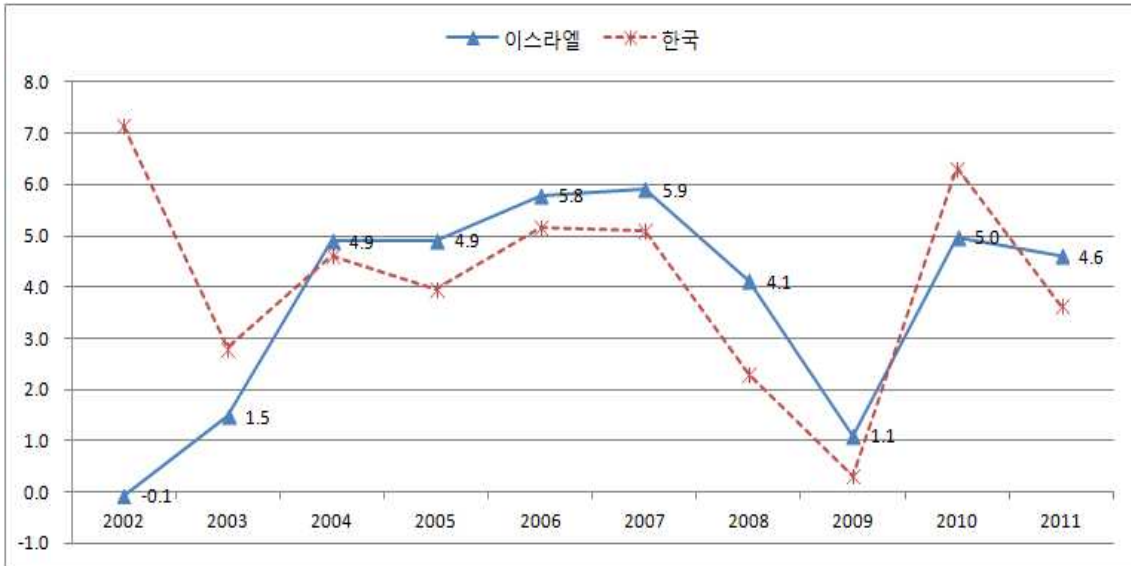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GDP규모는 PPP 기준으로 2011년 209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이 그들의 6.6배 정도 크다. 이스라엘은 아주 최근인 2011년에 OECD에 가입했다. 그렇다면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 추세는 어떨까? OECD 통계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과 한국의 최근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연평균 4.1%, 이스라엘이 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1] 참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추세 역시 이스라엘의 변동성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소비 물가 수준도 2~3%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물론 한국경제는 인접국가 중국경제의 호조로 인한 중국효과 덕분에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이스라엘 성장률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할 정도의 외형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에게 특별할 것은 없다는 의미다.

[그림 1] 이스라엘과 한국의 성장률 비교



정보통신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경제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장 추세가 아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산업의 존재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정보통신산업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 정보통신 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13%로서 OECD국가 평균 8.3%를 훨씬 능가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 1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다. 한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고 핀란드의 순위로 정보통신 분야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양적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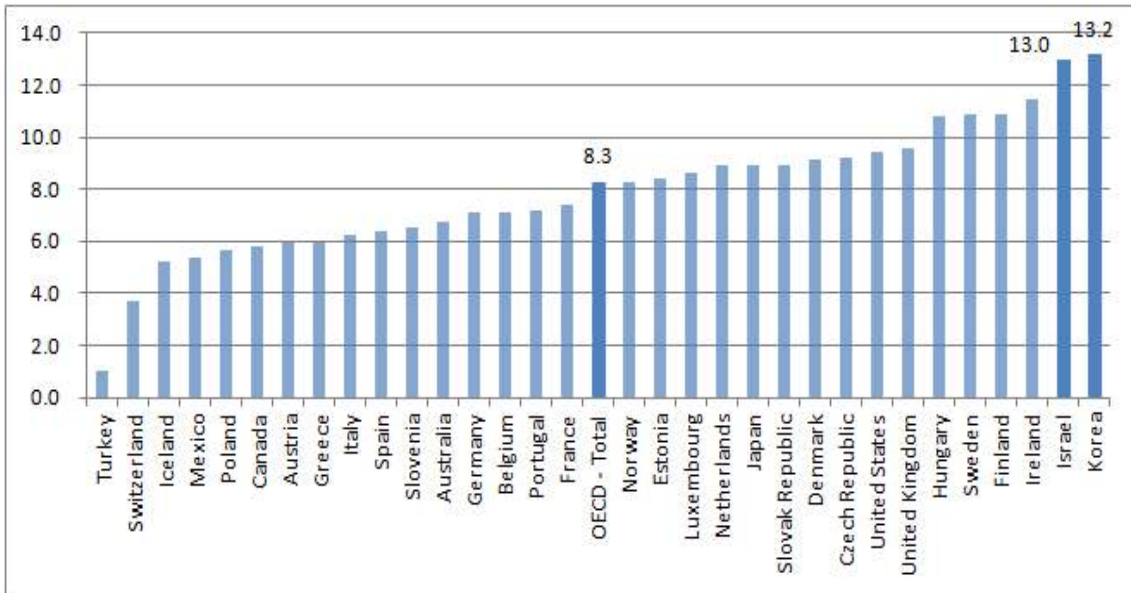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은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산업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 가공 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주 수입은 다이아몬드 수출 207억 달러, 기술 수출 및 기술 기업의 국외 매각 145억 달러, 방산물자 수출 73억 달러, 관광수입 49억 달러, 미국의 군사원조 32억 달러, 미국 종교 단체의 기부 20억 달러 등 연간 총 526억 달러로 전체 GDP의 22%를 차지한다.” (『경제기적의 비밀』 205쪽)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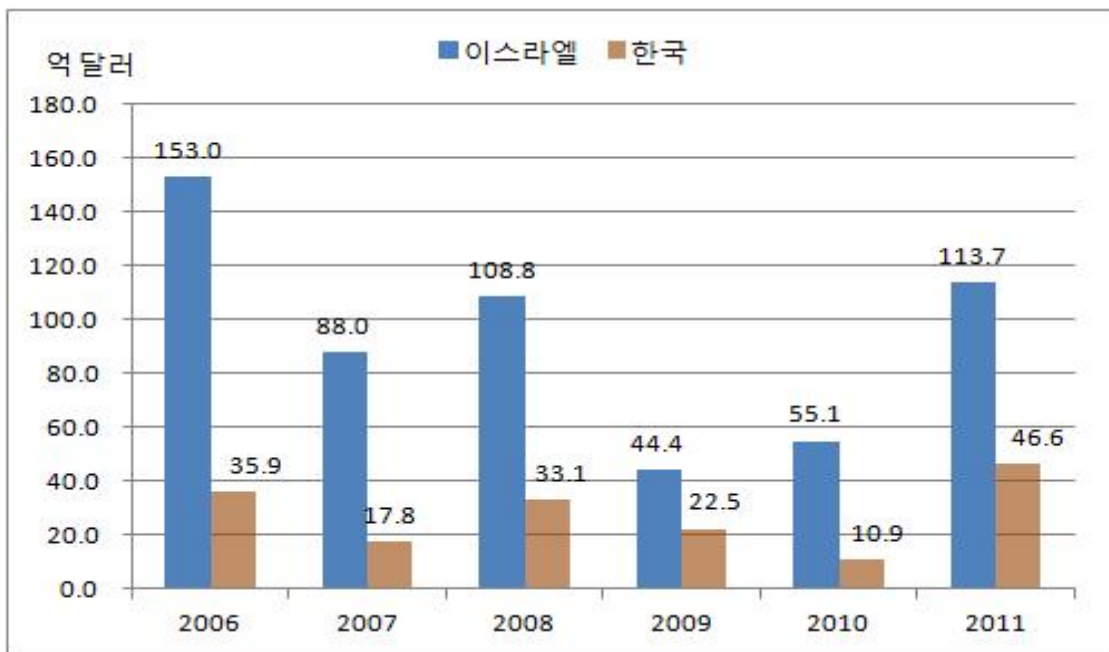


[그림 2] 정보통신(ICT)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비교(2009년 기준)



어쨌든 그림에도 불구하고 GDP중 연구개발비가 우리의 두 배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은 2009년 기준 63개로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고인 것도 사실이다.(『창업국가』 26쪽) 외국인 투자 유치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활발하다.([그림 3] 참조) 특히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창업자들이겐 이스라엘이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나라” 라고 칭찬할 만큼 정보통신, 나노, 바이오를 중심으로 벤처 창업이 활발하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그림 3] 이스라엘과 한국의 FDI 유입 규모 비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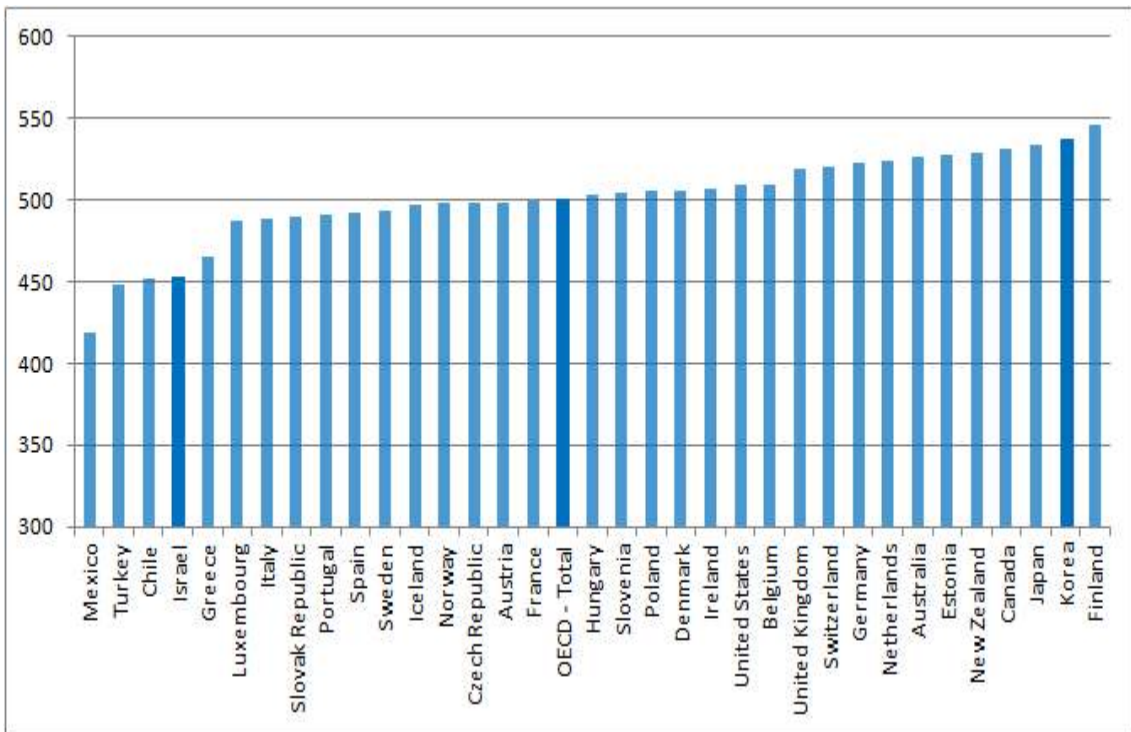


이스라엘 기술벤처 활성화의 특별한 비결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된 이스라엘만의 몇 가지 특수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특수 관계다. “미국은 코끼리, 이스라엘은 그 위에서 춤추는 발레리나다. 이스라엘의 생존에 미국은 필수적이다.” (『경제기적의 비밀』 97쪽)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기나라의 국채 보증을 서주는 그런 나라, ‘작은 미국’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페이스북, EMC 등 미국의 주력 정보통신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이스라엘 벤처들을 인수합병하고 투자하는 현상은 “이스라엘의 정보통신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대인의 미국 정치에 대한 막대한 로비, 미국인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호적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병영국가 이스라엘의 특징에 있다. 남녀모두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최고 우수한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정보 공수특전부대에 입대한다. 그리고 제대 후 군대에서 경험한 기술과 인맥을 기반으로 벤처 창업을 하는 코스를 밟는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군사적 경력이 학문적인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취업 인터뷰에서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어느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느냐는 것이다.” (『창업국가』 98쪽)

[그림 4] PISA 중위 수준 과학 분야 평가 비교(2009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학이나 과학 학력 평가는 그다지 좋은 수준이 아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2009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잘 알려진 대로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위였지만 이스라엘은 최하위권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의해 기초기술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에 진출하여 기술을 축적하는 구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트라 무역관이던 이영선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전체 고교 졸업자 중 상위 2%의 엘리트로 구성된 군부가 있다. 이들은 군에서 전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도 방위산업에 연구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성과가 좋았다. 이스라엘의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은 이들 군에서 개발한 기술이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에서 얻은 경험과 이미 제대한 선배와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다.” (『경제기적의 비밀』 227쪽)

이처럼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미국이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버티는 것과 유사하게, 미국 정보통신 산업과 밀착 연계된 이스라엘 정보통신 산업으로 하여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일정하게 활황을 누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벤처산업 생태계는 국방산업과의 단단한 인적, 기술적 결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목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하거나 참조하기 어려운 특수한 조건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이스라엘 벤처 환경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와 유사한 이스라엘 경제의 문제점

한국경제와 이스라엘 경제는 공통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여, 두 나라 모두 지난해까지 재벌개혁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포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한 바가 있다.(새사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2012.5 참조) 반면 우리의 경우는 아직 재벌개혁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단 이스라엘에서 벤처 창업을 배우기 이전에 재벌개혁부터 배우는 것이 순서일 듯싶다.

동시에 이스라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불평등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거의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5] 참조) 물론 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대체로 빈곤층이 많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전업 유대 종교인이 인구의 10%나 되는데 이들이 통계상 빈곤층에 잡히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 하여도 불평등이 OECD국가에서 가장 나쁜 그룹에 속하고, 여기에 재벌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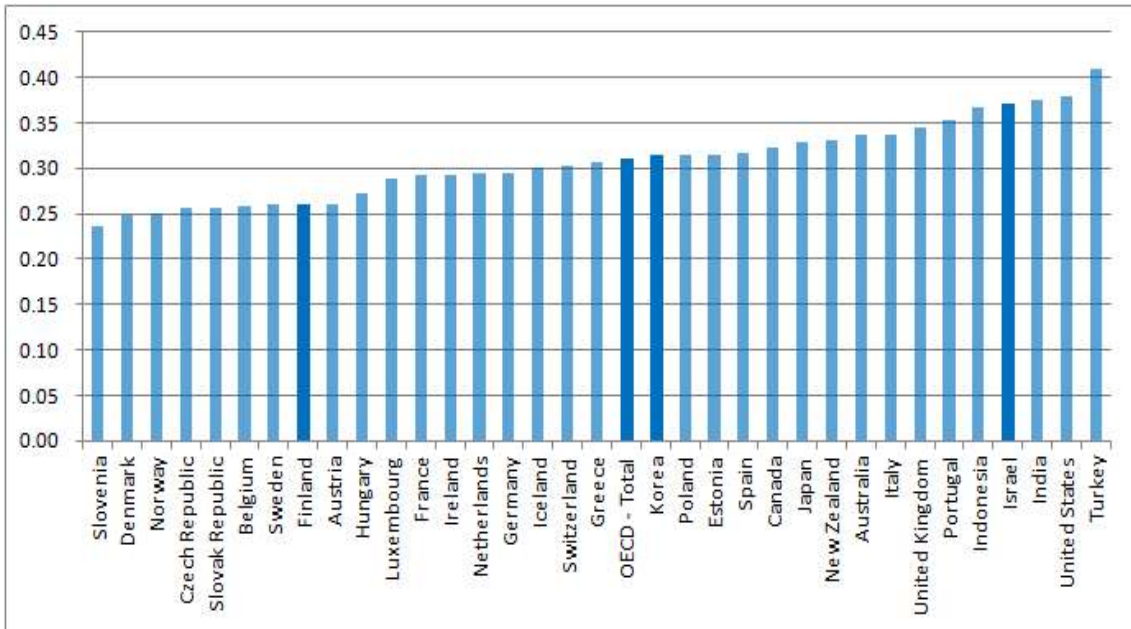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력 집중도까지 높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경제가 벤처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배 문제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대목은 한국경제나 이스라엘 경제나 모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차라리 핀란드의 복지모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림 5] 이스라엘과 한국의 불평등(GINI) 정도 비교(2010)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사하게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 기술 중심이 벤처창업이 활발한 국가임은 분명하다. 지금도 미국의 IT산업 경쟁력 비결을 배우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벤처 창업 열기는 마땅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제를 참조하려 할 때에는 특정 국면만 떼어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의 결과는 전체 경제가 상호 연관된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기술벤처 경쟁력은 미국과의 특수 관계와 국방산업과의 특수 관계를 빼 놓으면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한쪽에서 강력한 벤처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편에서 경제력 집중 폐해가 심한 재벌의 존재가 버티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정도도 매우 심한 것이 이스라엘 경제의 또 다른 이면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지금 우리 경제와 유사한 측면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안고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경제는 한국경제가 참조할 만한 차별적 모델이라기보다는, 여러모로 한국경제와 닮은 점이 많은 모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와 같은 기초적인 양국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한 후에 세부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하며, 박근혜가 정부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여 창조경제를 구체화할 때에도 이런 점을 고려하기 바란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4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 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